

第41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0月18日(火) 11時05分 開式

第41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 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5. 開 會 辭
6. 閉 式

(司會 議事係長 韓相殷)

(11時05分 開式)

○議事係長 韓相殷 지금부터 제41회 鍾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議員 同志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41회 臨時會를 맞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94년도도 앞으로 불과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 입각해서 다음 臨時會가 11월 초에 개최됨에 '95년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제2대를 맞이하는 중요한 경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臨時會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臨時會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議員께서는 생업에 대단히 바쁘시지만 우리가 이 땅위에 30년만에 맞이하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초대의 황무지로부터 미래를 지향시키는 우리 의원으로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모든 희생과 더불어 우리는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기여해 왔다고 하는 큰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뒤돌아 생각해 볼때 3년여 동안 한 일도 많습시다마는 앞으로 산적된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도 초창기와 달라서 우리 臨時會 議員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고 마음속으로 손뼉을 치고 있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本議長도 알고 있습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근본정신에 입각해서 구민 복지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초대의 이 기초 議員의 참다운 意義를 이 땅 위에 정착을 할 뿐만 아니라 맞이하는 제2대 議會 또 지방정부의 그 시발점을 기착으로 하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나머지 이 '94년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재삼 당부드리면서 저의 두서없는 개회사의 말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韓相殷 이것으로 제4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 10分 閉式)

